東亞日報

本紙夕刊共六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印刷人 趙宜敦

政變을惹起한 稅整問題

一

日本政機의標識가되는稅制整理問題는 畢竟政變까지惹起하고마랏다 大體稅金이라는것은 國家經費도보아야하지만은 그나라國民의所得收入을 考慮하고그割額을 作定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그러면日本國民의所得收入은 얼마나되며 賦課稅額은 얼마나되는가를 硏究할必要가잇다 去番日本大藏省國稅調査課에서調査發表한바에依하면 日本全國民의一年所得의總額은七十億四千九百萬圓이니 一人當平均所得額이百二十四圓에不過하고 國際聯盟事務局에報告된數字에 依하면日本國民의一人當平均所得額을百六十四圓이라하엿슨즉 이것을現在人口數에依하야보면 日本國民의總所得額은 九十六億九千八百萬圓에達할지니 前者에比하면約二十五億圓의差가잇다 그리고大正十一年度의日本國民의租稅負擔總額은 國稅十一億一千一百萬圓 地方稅六億四千三百萬圓 總計十七億五千六百萬圓으로 이것을全國民人口에分하면每人平均租稅負擔額은 三十圓四十六錢에當하야 國民所得平均額을 百六十四圓으로假定할지라도 各人所得額에對한負擔은 一割八分五厘에 達한다

二

百六十四圓의所得額에對하야 三十圓四十六錢의賦課라는것은 果然重課라하지아니할수업다 가장重課國民인英國々民도戰爭當時賦課率이所得額에對하야 最高二割六分七厘요 最近에至하야는二割未滿에下하엿스며 米國々民의賦課도 戰爭當時一割二分一厘이든것이 最近에至하야는 減少되고 一割一分에下하야 日英米三國々民에 最大賦課를持續한國民이 日本國民이다 이것이 畢竟은日本國民의減稅運動의動機가되고 政黨間의政爭의對像이되야 政變까지惹起하엿는데 그憲政會內閣의稅制整理案의內容을보면 現稅制體系에는別般改革을 加치아니하고 所得稅 地稅及營業稅를 輕減하며 織物消費稅 賣藥營業稅及醬油稅를廢止하되 其代身에相續稅 酒稅及關稅를增徵하며 새로히化粧品淸凉飮料稅를新設하야 減稅及廢稅로 國庫收入의減額八千萬圓을 다시他稅의增徵及新設에依하야 補塡한다는것이 現政府가案出한稅制整理案의骨子라고한다

三

稅制整理에對하야는 從來부터三個의論旨가잇서왓다 一은民間側의提唱으로 國庫收入의影響如何를不顧하고 幾種類의租稅를全可廢止하는同時에 一般으로現行稅에 對하야도減稅하되 賦課率을 公平케하라는 稅權論이요 그二는現政府의與黨이엿든政友會의提唱으로 [illegible] 意와一致하지못하나 及하드래도 地方稅를中心으로 廢止와輕減을徹底히한다는것과 그三은現政府가主唱하고 大藏省이同意하 [illegible]

옛다는國庫收入에影響이밋치지 아니하는範圍에서 稅額의多少는國民生活에 直接關係되는 稅制의不公平을 矯正하자는것이 [illegible] 社會政策的意味가 濃厚한것 [illegible] 이다 이제吾人의客觀的立場에서 日本의稅制整理問題를 보건대 此를批評하면 現政府의稅制案은 [illegible] 의重大한原因과 動機가되는 [illegible] 하나그러나亦然姑息策에不過한 重大한問題라고아니할수업다

太平洋會議에 (一)

필립핀總督의歡迎辭

布哇에서 宋鎭禹

會議第二日

七月二日은 九時부터『힐번』博士의司會下에서 各國代表의正式報告가잇섯는데 그要點은如左하엿다

濠洲로부터는三氏濠洲의產業과 人口狀態를 說明하야 白濠主義를高調한後 濠洲는太平洋의 平和確保를希望하는同時에 太平洋勞働問題의 [illegible] 提携하는바이라 日本及中國의 貿易關係를密接하게하는同時에 今後의形便에關하야 多大한 興味를感하는바이라하엿다

布哇아담쓰博士는 布哇에對한모든問題는 太平洋問題의一部分과同一히 看做할것이다 當時의社會問題의 原因과解決은 結局產業問題에 歸着될것이며 人種問題도 또한太平洋問題의하나인것으로 생각하는바이라하엿다

新西蘭콘로리프氏 移民問題가업는 新西蘭의現狀은 自由로任民을管理할수잇다 그러고新西蘭이 英國民과의協議를歡迎하는동안에는 米國의政治的經濟的援助를 밧지아니할것이다 다못問題는 東洋에對한勞働問題의 惡化로因하야 本國의社會組織과 生活狀態가威脅을바다가하는點이다 太平洋의平和를爲하야 各國의人道的信念이 充滿히發達되기를 希望하는바라하엿다

中國顔氏는近代中國의思想과 產業狀態를 述하고 中國靑年間에는 急速度로 國家及人種觀念이發展하며 社會主義者와 新社會組織을 企圖하며 宗教的束縛으로부터 人類의自由解放을 希望한다 또한專制同盟의 所謂不平等協約의撤廢를 絕叫하는것이다 이와가튼中國의現狀은 早晩間覺醒할것이다 不平等協約 其他禁制 軍器輸送等의 모든特種問題는 이것을改正할必要가잇다云々

필립핀 [illegible] 諸部族中에 [illegible] 歡迎하고 [illegible] 方面의叛逆軍은佛軍의陣地堅固하기때문에 攻擊을中止하얏다고하는狀態이며 西班牙地帶西部叛逆軍은 不活發한狀態인대 [illegible] (巴里無電卅一日發)

君府에工場設置

米國自動車王『포드』氏는 希臘『루마니아』波斯土耳其 諸國에『포드』型自動車를 供給할計劃으로『콘스탄치노플』에 工場設立을 計劃中이라더라(나우엔一日發)

政本兩黨提携

大體方針決定

政本兩派의提携는 三十一日夜三의 補缺候補者銓衡을 終하고明日

對中關係者會

米人이開催

來九月七日에

中國에利害를有하는米人은協議한結果 來九月十七日『오스틴』大學에會議를開하고 米中間의意見情報交換의 狀態를改善하야 兩國間의文化政治的通商을 增進할方法을討議하기로決定되엿더라(東京電)

월가方面戰況

事態緩和되야

월가前方의戰線은 [illegible] 緩和되

死傷十數名

南京서英中人衝突

增賃要求가原因

三十一日午後六時頃南京의 英商和記洋行의中國人職工들은 賃銀增給을要求하야騷擾를 作하야 밀어옴으로 英國人巡査는 發砲하야死者四名 傷者十數名을出한바 一方英人도職工에게毆打를當하야 死者一名 負傷者二名을出하엿스며 一名은群衆에게봇잡혀갓다더라(上海一日發)

米敎會堂에서衝突

上海廣東事件援助示威行列

◇……負傷者가數名

二十八日河源發電에依하면 三十六日正午新豐縣學生聯合會에서는 上海廣東事件援助의示威行列을行하엿는데 午後一時頃行列이 河源市中敎會堂前을通過할때 行列中一部가會堂을襲擊하라고할 즈음에 衛用의拳銃으로防禦하야 數名의負傷者까지내엿스나 示威群의再襲擊으로 因하야敎會堂은蹂躪되엿다 同敎會는米國宣敎師의所有임으로 米國領事는目下事實을照會中이라더라(廣東廿八日發)

武力解決의意嚮

英對廣東態度益强硬

廣東政府에對한英國의態度는더욱强硬하야 飛行母艦及陸軍兵의 香港着과同時에 廣東政府에對하야 嚴重한警告를發하야 罷業停止를要求하엿는데 若此에應치아니할境遇에는 武力으로써英國의旣得權及商業上의利益을 保護할수밧게업다고하야 漸次主戰的態度를取하는것이 顯著한事實이다 그리하야若武力解決의手段을 取할境遇이면英江門碇泊의黃埔要塞을 一擧에占領하야 廣東을위롭게하리라는 意嚮이겟슴은 一般이肯定하는바이라더라(香港二十九日發)

參政院開會式

臨時執政의諮詢機關인臨時參政院은 三十日開會式을擧行하얏다(北京卅一日發)

西藏에內亂勃起

一萬의中國兵出動

中國西藏에서는目下軍閥과保守派『라마』敎間에內亂이이러나 一萬의中國軍은內亂을鎭定키爲하야 西藏에出動하기로하엿다(나우엔一日電)

米國에强震

昨三十日米國加洲에强震이잇섯다더라(나우엔一日發)

米空軍鎭守府

太平洋岸으로移轉

全部移轉은來議會에實行

海軍卿演說喝采博得

米國海軍은일즉부터空軍의根據地를太平洋沿岸에移轉하기를 計하고海軍省에서도贊否의兩論에 分하야相爭中이든바 最近에移轉論이勝을制하야 산듸에코에는 空軍鎭守府設置를決定한바 太西洋沿岸에 配置된飛行艇及飛行機의全部를 移轉할 計劃인바 次期議會에決行하게될터이며 海軍卿윌버氏는昨日太平洋沿岸巡廻中에 川崎某를은 强硬한演說을 하엿슴으로 聽衆의喝采를博得한 바이더라(華盛頓廿九日發)

政友代議士會

合同成立과

協調決裂顚末報告

政友會는一日午後一時 政本提携의成立報告의必要로 代議士會를開催한 바 岡崎, 小川, 望月, 武藤諸氏以下所屬議員約百名이 出席하야 岡崎總裁로부터 今回稅制案에對하야 閣僚間에意見相異로協調決裂되엿는바 田幹事長으로부터 政本提携에 對하야 松浦本黨幹事長을 通하야 交涉中 昨三十一日 完全히政本提携의 成立된旨를報告하야 何等異議업시可決하고 二時三十分에散會하엿다더라(東京電)

고혼의 [illegible] 意見에一致되엿슴으로 提携問題에急速히具體的進展을 엇스리라 고豫想되더라(東京電)

畢竟單獨內閣

大臣補缺은全部自黨

加藤首相은 二日午後五時下召에 依하야 參內한바 攝政宮殿下는 直時拜謁을 命하고 政友會二閣僚의 辭表를 除한以外의 各閣僚의 辭表는 恐懼에 不堪하다하야 謹히此를 拜受하고 退出한後 直時首相官邸에 入하엿는데 一日夜中에 三閣僚의 補缺候補者銓衡을 終하고明日 中에라도 親任式을 行하게되리라 하며 傳하는바에 依하면 三閣僚는 貴族院方面에서 物色치 안코 全部 憲政會 內部에서 銓衡할 準備가 잇다 한즉 左記 四氏에게 親任式을 行하리라고 觀測되더라(東京電)

親任式은二日

第二次加藤內閣은 二日午十二時에 擧行하게된바 閣僚는 左와 如히 決定되엿더라

商工大臣 片岡直溫

農林大臣 早速整爾

司法大臣 江木翼

內閣書記長 塚本淸治

書記官長 湯淺倉平

再受命의經路

牧野內府는 二日午後三時 攝政宮 殿下에 拜謁하고 時局收拾의 道는 加藤子에 再次 內閣組織의 大命을 降下하는 外에 他道가 업다는 意見을 奉答하야 西園寺公의 奉答을 傳達하엿슴으로 午後四時五十分 電話로 加藤子를 召하게되엿다 加藤子는 五時七分 東宮御所에 到着하야 攝政宮殿下에 拜謁하고 大命을 拜受하여 가지고 곳 官邸에 入하야 再組閣 準備에 着手하엿더라(東京電)

議會에서猛衝突

◇犬養毅氏談

大命이 加藤子에게 再次降下한 報를 가지고 晉羽花增에 休憩中인 犬養氏는

單獨內閣의徹底

◇床次政本總裁談

大命이 加藤子에게 再降下한에 對하야 政友本黨總裁 床次竹二郞氏는 感想을 語하되 政界의 空氣가 不安한 狀態에 잇슴은 國家를 爲하야 不祥事인즉 歸着될 곳에 歸着하는 것이 올타 吾人과 自然 意見을 달리하는 바이나 어대까지 聯立內閣으로 主義政策이 動搖하야 徹底치 못한 政治가 行하기보다 單獨內閣으로 徹底히 하기를 爲하야 快히 생각한다 [illegible] 從來와 가치 野黨으로서 前何等 差異가 업지만은 勿論 政友會와 野黨이 되어 同行을 하든지 兩者의 政策이 全部 一致함이 드래도 그는 至難하다云々(東京電)

時局에無影響

政本合同과

憲政會側의觀察

混沌한 政局 招來에 對하야 憲政會는 그 一夜作의 政本提携는 時局問題에 何等 影響할 바 아니요 牧野內府의 西園寺公 訪問은 憲政會側에 매우 有利하다고 樂觀한다 一方 本黨은 政本 提携를 提唱하면서 大命降下에 依하야 其去就를 決定하리라 더라(東京電)

政本兩總裁

共同聲明發表

三十一日夜 三線亭 政本兩黨 有志의 會合에 依하야 兩派의 提携는 統一合同의 [illegible]

佛銀行罷業惡化

財政長官의兩便引見

佛蘭西銀行從業員의 罷業은 畢竟 惡化하엿는데 財政長官『카이요』氏는 三十日에 從業員側 代表者를 引見한 바 三十一日에는 罷業銀行의 支配人 等을 招致하야 事情을 聽取할터이라더라(巴里三十一日發)

財界雜俎

銀權論者도 金權論者에

◇鈴木朝銀新總裁

四代의 新總裁 鈴木島吉君은 [illegible] 資本金一億圓의 正金銀行의 頭取의 所謂 外占하든 勢力을 外國爲替에 通하야 相當한 經驗을 有한 사람이다 正金銀行의 副頭取로 二十餘年이나 되는 中 結局 同行의 副頭取에서 取締役으로 引退하엿든 同君은 同行의 平取締役으로 부터 名稱八千萬圓의 鮮銀總裁에 新任되엿는데 同君의 整理難行中에 在한 朝鮮銀行 復活에 對하야 如何한 策案을 有하엿는가 는 知키 難하나 歷代總裁가 거의 失敗를 하고 물러나간 그 뒤자리를 占하게 된 同君의 將來에 對하야 世人은 大히 注意視하고 잇다

同君이 正金銀行의 重任으로 잇슬 그 때는 朝鮮銀行이 大陸 發展을 計하든 그 때로 當時 正銀과 鮮銀이 滿洲大陸에서 勢力의 大競爭을 하든 事는 아직 잇지 아니하얏슬 것이다 銀建主義의 正銀과 金建主義의 鮮銀은 一時 猛烈한 競爭을 試하엿다 그러나 畢竟은 正金이 그 勢力을 鮮銀에게 讓步하는 結果 鮮銀은 其後부터 大陸에서 大勢力을 占케되엿다 그러나 오늘날 讓步를 한 正金은 其勢力을 아직 維持하는데 力弊한 鮮銀은 그와 갓흔 醜態를 發露한 것을 보면 여기도 先勝後敗 先敗後勝의 理가 잇지를 아니한가 한다

◇

今日 鮮銀總裁 當時에 正金 正任 者 鈴木君은 勿論 銀建論者로 鮮銀의 金建主義에 對하야 反對하든 사람이다 그런데 그 銀建論者가 今에 와서 鮮銀의 總裁를 承한 것이 如何한 消息이다 前記 鈴木君을 訪問하야 當身의 銀建論은 今日에 在하야 如何한가 하고 質問한 즉 同君은 答하기를 當時와 今日과는 境遇와 地位가 다르다고 하엿다 한다 其境遇와 地位가 다르다는 말은 滿洲의 金融 統制의 今日의 發展을 標準하고 한 말인지 自己의 境遇와 地位가 今日에 이르러서 달라졋다는 말인지 萬一 이것이 自己 標準에서 나온 말이면 同君의 鮮銀 復活에 對한 策案으로 可히 斟酌할 수 잇고 今後 同君의 將來에도 前日 失敗者의 履歷을 模倣치 나 아니할가를 疑訝하는 바이다 注意

無產政黨組織

八月十日에各代表大阪에來集

◇贊成及反對의槪勢

日本農民組合은 去六月二十一日 無產政黨 組織에 關하야 全國의 二千名 以上의 組合員을 有한 勞働團體에 提議하야 無產政黨 組織의 準備 硏究會를 開催하자고 一方 勞働組合의 決議에 依하야 [illegible] 大阪市 電氣自動會, 船舶司厨同志會, 郵司同盟會 支部, 中部農民組合, 八幡共同硏究會, 門司海員組合 等 十六團體이요 反對派는 東京印刷工組合, 總聯合會, 神戶海員協會 等 十七團體이며 時期 尙早論者는 [illegible] 四名式의 代表者가 集會하기로 되엿는데 贊成 組合은 勞働總同盟, 官業勞働總同盟 [illegible] 三十一日 二十八團體로 加盟의 返答을 得하엿슴으로 八月十日 午前 十時 中之島 公會堂에 各 組合에서 四名式의 代表者가 集會하기로 되엿는데 [illegible] 合에 提議하야 無產政黨의 產婆役을 엿는데 本組合이 다만 外에 勞働組合도 加入할 것이고 水平社 政治硏究會는 加入 資格은 업스나 出席하리라더라(大阪電)

滿洲粟需要

別無增加?

滿洲粟의 朝鮮 需要는 相當 緩慢하야 元山 城津 方面에 北滿粟을 多少 見하나 大體 北方面에 多少 需要를 喚起함에 不過하다 朝鮮의 食糧은 不足 日本大麥 外米 大麥의 供給 朝鮮 等의 上場과 外의 補給 馬鈴薯 等으로 端境期 外지의 滿洲粟의 輸入은 增加될 바 업스리라 하고 觀測되더라

納稅減免調査

龍山方面의것

京城府財務課의 調査에 依하면 龍山方面의 家屋被害狀況은 左와 如하다 합

流失戶 半流失戶 全潰戶 半潰戶 浸水家屋 浸水戶 轉倒一戶 滅失門 浸水家屋 [illegible]

右罹災府民에 對하야는 嚴密한 被害調査를 行하야 第二期 納稅期부터 稅額의 減免을 斷行하기로 決定하야 本月로 納期한 酒稅에 對하야는 徵收期限을 公布하야 目下 調査中인데 爲先 免稅 對象만 한 事情에 逢着한 者는 醸造酒類 流失 千石에 對한 稅額 二千圓은 當然 免稅될 것이고 다음 十月을 納期로 한 家屋稅에 對하여도 罹災의 程度를 考慮하야 減免을 實施하야 그 豫想額이 約千四五百圓 又 學校 組合 戶別割도 罹災者의 資産 所得 程度에 應하야 等級의 減下를 行할러이며 그 豫想額이 二千圓이라 나 되야 結局 府의 水害에 關한 納稅 減免 程度는 二萬六七千圓 可量되리라 더라

客月不渡手形減少

京城 手形交換所의 七月中 不渡手

官米拂下成績

三十五錢安價

第二回 官米拂下는 大正十三年産 米 一萬俵로 定期 側에 大部分 落札되엿스나 大正十二年米는 市場 消化難으로 入札 價格의 低下에 約二回보다 三十五錢이 低下하야 三個이 賣殘되엿고 加州米 外米 더라

田中政友總裁

急遽히東京에

同聲明을 發表하리라고(東京電)

神戶支部 大會에 臨席한 田中 政友會 總裁는 大會 終了後 午後 七時 發 特急 列車로 急遽히 東京으로 向하엿는데 二日 午前 九時 東京驛에 到着할 터이라더라(東京電)

確成되야 一致의 政策에 邁進하기로 하엿스나 兩總裁는 日間 共

무서운弊政의中毒

◇投稿規定 ◇行數는 一回 二十行以內 ◇本社의 民名을 記入할것 ◇投稿歡迎 ◇ [illegible]

◇아! 弊政의 中毒이란 참무서운것이다 服裝만 바꾸인 朝鮮의 舊官吏 舊日 憲兵 時代나 別로 다를것이업다 참으로 地方 警察의 專橫이란 言語道斷이다 그에 抑壓된 個性은 맛참내 피여나기가 容易치 못한 듯하다

◇最近 外地로부터 도라온 나는 黃海道 山郡中 가장 開通된다는 南川에 잇는 바 對하는 사람마다 거의 本性을 일코 다만 機械的으로 追從하는 態度가 現 [illegible]

[illegible]

新聞購讀料改正과

先金讀者에限하야郵料本社負擔

八月一日부터 本報 購讀料를 如左히 改正하온바 八月부터 朝夕刊 合 六面으로 紙面을 擴張하는 同時에 購讀料를 如左히 改正하야 從來의 郵料 一個月 十五錢을 本社 負擔하기로 되엿사오니 玆에 謹告하나이다

一個月購讀料 一圓

三個月購讀料 二圓九十錢

六個月購讀料 五圓七十錢

一個年購讀料 十一圓十錢

東亞日報社 白

手形交換激減

京城手形交換所의 七月中 手形交換高는 枚數 八萬六千九百四十三枚 金額 三千六百二萬二千圓으로 前月보다 [illegible] 激減을 보이엿다 (單位千圓)

朝鮮鐵道決算

朝鮮鐵道會社의 上半期 決算은 總收入 百九萬五五百四十四圓 總支出 八十七萬七千五百六十六圓 差引 二十一萬二千九百七十八圓의 利益金을 計上하야 近々 總督府의 認可를 受하야 八月二十八日 東京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할터이라더라

消息

◆李承薰氏(本社顧問) 三十一日 入京 太平通 太平旅館에 二三日 滯留 豫定

◆大村卓一氏(朝鮮總督府 鐵道局長) 水害 救濟 慰問次 一日에 本社 來訪

橫說竪說

◇ 日本內閣은 結局 加藤子에게 再歸되엿다 김치국 마시든 親舊들이 可觀

◇ 中國 前大總統 曹錕 君은 總統府 幽閉所에서 兵卒로 變裝하고 脫出하랴다가 發覺되야 도로 嚴重히 幽閉되엿다고 흑 예라다가 못친 細音

◇ 米國에서 殺人光線이 發明되엿는데 威力이 二十里에 及한다고 이야말로 소리 안나는 銃

京城紡織株式會社
各地特約店

三神山 天桃 삼성표 不老草

東萊洋襪
品質優良 價格低廉
定價表는 請求次第送呈
合資 東萊洋襪

家庭副業

麥圓 友榮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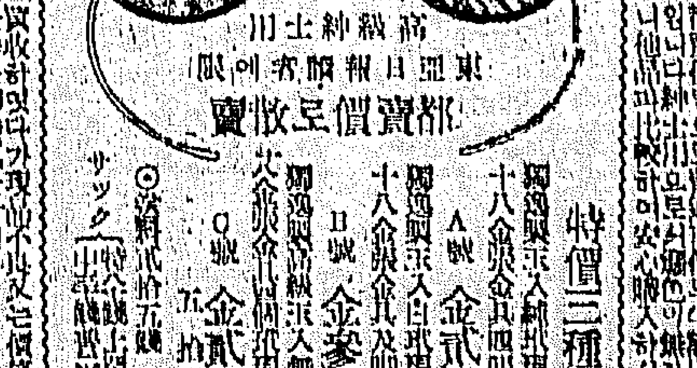
—廣告—
—特告—
本社 記者 崔鶴松
本社 代表者 方仁根
朝鮮文壇社 白

最新改良特製品
學生時計
特價五圓
地方注文은 代金引換
信鍾堂時計店
京城鍾路三丁目七番地

白靴大宣傳
海昌社洋靴部
本社에서 三日以上 寫眞提供

京城府 [illegible]

募集
醫師試驗準備
自八月三日(夜間)
京城高等豫備學校



責任
保證
特價三種
金貳圓 金參圓
우쓰보야 貿易部

京城自動車講習所

寫眞
技術은 金鮮第一이요 또 代價도 第一 低廉함
高寫眞館

附屬醫院

梅毒病者에게急告
獨逸製
六〇六號 半額 六圓
柴崎仁壽堂支店

指令第七〇八號
題號 開闢
京城府益善洞四十五番地 發行人 李斗星
京城府三淸洞五十二番地 編輯人 李敦化
右雜誌ハ安寧秩序ヲ妨害スルモノト認メ新聞紙法第二十一條ニ依リ其ノ發行ヲ停止ス
大正十四年八月一日
朝鮮總督子爵 齋藤實

「言論取締는如此!」 開闢誌에發行停止!

팔월호가압수하자발행뎡지까지당해 오개성상의건실한력사에한때의서리

◇못피자찬서리—開闢의悲運

號外까지押收

인쇄중에압수당해

언론이란이름만남은조선안에서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신문잡지는 경제뎍경영곤난보다 더헤아릴수업는 당국자의뜻을 맛추기 어려워서 소위발매금지란는 액운을 한달치고도 몃번식을당하게되야 언론을생명으로삼는 직접당국자는 물론이로되 당식(?)삼는 조선의민중은 항상말못할 고통과 보람업는탄식으로 그날그날을넘기는 형편인데 언론취테에대한박침을 낫지 고집하는총독부당국은 삼시국댱(三矢局長)이 취임한이래로 더욱그태도와박침이 여디가업서 그동안 각종신문잡지의 발매금지가 거의 날마다게속하다십히 하든바 이에대하야 긔자는 편집인리돈화(李敦化)씨를 삼청동(三淸洞)자택으로방문한즉 씨는아래와가치말하더라

개벽지상에 당국의기휘에 거촉되는기사가실리자 즉시 발매금지를당하는 동시에 일일오후이사경에 총독부당국에서는 경긔도경찰부를거처 개벽에대하야 발행뎡지의지령을단연히교부하야 오개성상의 력사를가지고조선문화향상에만흔 공로잇는 개벽은 일시의 서리를맛게되엿더라 ... 발행뎡지까지 당할줄은 아지못하고 이미 팔월호의 게재하엿든 긔사를 삭제하고 호외발행에착수하야다시인쇄를하엿든바 에서는즉시 그호외까지 긔부압수를하엿다더라

善後對策別無

◇책임자들이모히지를안이여서 ◇아직은별한대책이업습니다

編輯人 李敦化氏 談

◇압수된본보의개벽광고—중앙의쇄선곳이압수된부분

意外千萬

불원간해케되겟지요

◇朴達成氏談

주간김긔뎐(金起田)씨는방금강화(江華)에 출장중임으로 긔자는 박달성(朴達成)씨를 방문한즉 씨는 ... 「실로의외올시다 귀벌이 오기는 ... 」

「言論取締의一端 最後로斷然處置」

【警務局某當局者談】

개벽잡지를 뎡간함에 대하야 경무국 고등경찰과 모당국자는 아래와가치 말하더라 ...

新聞紙法

光武十一年七月 改正隆熙二年四月第八號 (內部大臣)

第二十一條 內部大臣은新聞紙로서 安寧秩序를妨害하거나 或은風俗을壞亂케한다고 認定할時는 其發賣頒布를 禁止하며 此를押收하며 又는發行을停止 又는禁止함을得함

【備考】 「禁止」는全然版權이無效되는것이며 停止는發行의一時中止

廣告揭載押收

개벽잡지의광고를게재하고 개벽이압수되자본보도압수

朝鮮서도稀有한本報의奇禍

停止四次

禁止一次

◇過去記錄一覽

언론의 자유가업는 조선에서신문이나 잡지의 발행금지가튼것은 심상한일로인뎡되여오나 발행금지혹은뎡자가튼것은 조선서도흔치아니하야 아래와갓치 합밧이후과거십여년동안의 전례를보면

東亞日報 發行停止一次
朝鮮日報 發行停止二次
開闢 發行停止一次
新生活 發行停止禁止

讀者와記者

讀者課題記者記事

男子를凌駕하는 豪放無碍한言行(二)

—녀자로보앗다가코옛(?)인남자들—

◇昔日은樂壇의明星尹心德孃

男性的女性 世稱日왈녀

女醫름目的 畢竟은敎員

校門을一出 藝苑에出入

男子와艶書 片愛와失性

漢江에서溺死

데일고보생도

到處悽慘한情景

大山面極貧三百戶

가장피해가심한대산면에서 가장빈한한동포를순회구제

本社南道救濟慰問第三隊

檀君敎徒가告訴

曝陽에焦死

平北昌城에서

有力한嫌疑者

市外新堂里에서被捉

경찰부이하각서의총출로 각처에서혐의자다수검거

◇……蓮池洞拳銃犯人事件後報

重大嫌疑者 洪永傳

그미변당시에

仁川水道復舊

秘密文書所持

茶洞、鳳翼洞으로 各警察徹夜大搜索

京畿染病患者

逃走한犯人은 金相玉의親戚

不正衡僞造使用

大邱製絲組合出張所에서

求刑은來四日

黃江에巡査溺死

被告의斷腸悲泣

형의참혹한죽엄을참지못하야 고뢰순사를죽이려하엿다고

洗浦事件公判續報

警察調書를否認

고문으로헛대답을하엿다고

靑邱少年會

宣言綱領禁止

染病豫防注射

하로에필천명

◇주사침

高陽被害田畓

酒客男便을告訴

妻를打殺하고

第參拾四回 貸借對照表 ... 損益計算 ... 利益金處分 ... 京城電氣株式會社

寫字生 ... 三友社

謹告 故金一民今番水害救護中 七月三十日午後三時에廣州松坡前江에서水死하엿기에茲에訃告함 大正十四年七月三十一日

桑苗被害는微少
◇慶北管內의水災程度

過般洪水로말미아마慶北管內의桑苗被害는達城郡內東村方面이第一甚한便인데部分的으로若干乃至五割까지잇스나平均一割乃至二割假量되며그다음은慶山河陽과永川琴湖方面으로서道內를通하야約一割平均의被害程度인바何如間큰影響이잇슬만한被害에는이르지아니하엿다고(大邱)

李晩應氏美擧 高陽郡漢芝面漢江里李晩應氏는同里罹災同胞三十餘戶에二十五圓을分配하엿다는데同情者들은사람들이稱頌이藉藉하다고(東部)

李春植氏美擧 高陽郡漢芝面杏堂里李春植氏는去十九日同里罹災民三千名에게白米五升과現金一圓式을各各分配하엿다고(東部)

永登浦有志義捐 永登浦五〇〇李承俊白米金鍾各二俵 永登浦里五〇〇李萬俊白米十俵栗五俵

各團聯合發起
水災救濟會를組織

全朝鮮을通하야猛烈한暴威의大洪水로慘絶悽絶한消息이나날이新聞紙上에報道됨을보고[illegible]晋州에잇는各團體에서는到底히이를默過할수업다하야지난二十五日晋州青年會와晋州青年會館에서[illegible]各團體委員聯合會를開催하고여러가지方法을討議한結果朝鮮東亞時代三支局後援으로來三日에市內櫻座에서水害救濟素人劇을開催하고餘興으로朝鮮古樂과妓生演奏를한다는데一般人士의熱烈한同情을바라는바이라고(晋州)

青陽地方

忠南青陽郡一圓의今番水災被害狀況은大抵如左하더라
住家流失二 全潰一二 半潰五 浸水五六 田畓流失三七二反 埋沒二〇一九反 浸水二七七四町 作物被害高一二四七二圓 道路破損二四九間 流失二九間 橋梁流失七 破損二二 堤防流失七八五間 決潰二〇〇間 이外에渡水溺死三人이잇다더라(青陽)

各地水害情報

眞乾面有志義捐 楊州郡眞乾面內有志諸氏는南部四個面의罹災民等에게白米十五石과現金二十圓을募集하야救濟하엿다고(楊州)

罹災民을慰問 馬山在鄕軍人分會에서는去二十一日代表材崎信明, 富岡胤兩氏를咸安郡伽倻에派遣하야多數罹災民을慰問케하고現金三十圓을出捐하엿다고(咸安)

李鍾晩氏篤志 慶南東萊郡西面草邑里李鍾晩氏는租九石으로써船浦各處에收容된罹災同胞等에分配하엿다고(釜山)

罹災民救濟音樂 去月二十八日海州青年會와海州留學生會의主催로罹災民救濟音樂會를同會館에開하엿는데三十餘種의音樂은五六百名聽衆에多大한感動을주어當日의入場料에不少한同情이有하엿다고(海州)

地方費로救濟 富川郡廳에서는罹災民의救濟策을講究키爲하야去月二十四日面長會議를同郡廳內에서開하고討議한結果地方費中으로流失家屋每戶에二十圓式倒壞家屋每戶十五圓式補助하기로하고又救濟會를本部는郡廳에支部는各面所에設置하기로하엿다고(仁川)

碧潼救濟狀況

碧潼邑內有志金永北, 金完彬兩氏와朝鮮日報支局金熙純, 趙文奎諸氏가今番洪水로因하야被害된同胞에게救濟會를發起하고去月二十五日부터義捐金募集에熱誠한結果벌서二百圓에達하엿다고
◇同郡邑內基督教婦人傳道會에서는水災同胞救濟할目的으로廣木을購入하야同地禮拜堂內에多數한婦人들이會集하야衣服製造에매우奔忙中이라더라(碧潼)

金泉各團蹶起

慶北金泉에서는去七月二十八日午後十時金陵青年會에서當地有力各團體가會集하야過般水害罹災同胞救濟會를組織하엿는데發起及規約과實行委員은左와如하다고

發起團體(가나다順) 金陵青年會, 金泉勞友會, 金泉少年會, 東亞日報金泉支局, 聖潔教會, 時代日報金泉支局

規約(大槪)
一, 每團體二人式實行委員을選擧하야郡內各面을巡廻케할事
二, 實行委員五人으로常務委員二人을置할事
三, 存立期限 本年九月末日外地
三, 義捐募集區域 金泉一圓

實行委員(가나다順) 高徳煥, 金福潤, 金銀培, 金義用, 金元培, 李正得, 李鍾麥, 李俊棐, 李八奎, 林潤甚, 文局, 文仁濟, 石泰衡, 周南泰, 池恒珣, 黃俊周
常務委員 高徳煥, 黃俊周

日定
自八月二日 至八月六日 市內(總實行委員)
自八月十日 至八月二十日 郡內各面(分擔出張)

乙丑水災救濟
順天十一團體聯合

全南順天郡에서는朝鮮各地罹災民同胞等을救濟하기爲하야去月卄七日에順天農民聯合會, 順天青年會, 順天勞働聯合會, 無產者同盟會, 順天基督勉勵青年會, 順天青年俱樂部, 順天勞働青年會, 順天留學生大會, 朝鮮時代, 東亞, 朝鮮三支局等十一個團體의代表가時代日報順天支局事務所에會集하야乙丑水災救濟會를創立하엿는데그決議事項은左와如하다고(順天)

決議事項
一, 同情金品募集範圍는順天郡一圓
二, 執行委員朴炳斗外二十九名
三, 常務委員朴永震外二名
三, 募集한同情金品은朝鮮水害罹災者救濟會에送附할일

水災救濟巡劇

鐵山學生으로組織된在京留學生親睦會와鐵山金光普樂隊와는今番空前絶後의大洪水로因하야罹災한數萬同胞의慘狀을救濟할目的으로鐵山地方에巡回하기로하야第一着으로本月五, 六, 七 三日間을當地耶蘇教禮拜堂에서講演會及演劇을興行할터인데地方人士諸氏의만흔同情을바라며同會幹部諸氏는炎天임도不拘하고準備에奔忙中이라고(鐵山)

報恩青年義捐

忠北報恩青年會에서는罹災同胞를救濟하야달라고現金二十圓을本社에보내엿다고(報恩)

利川教會義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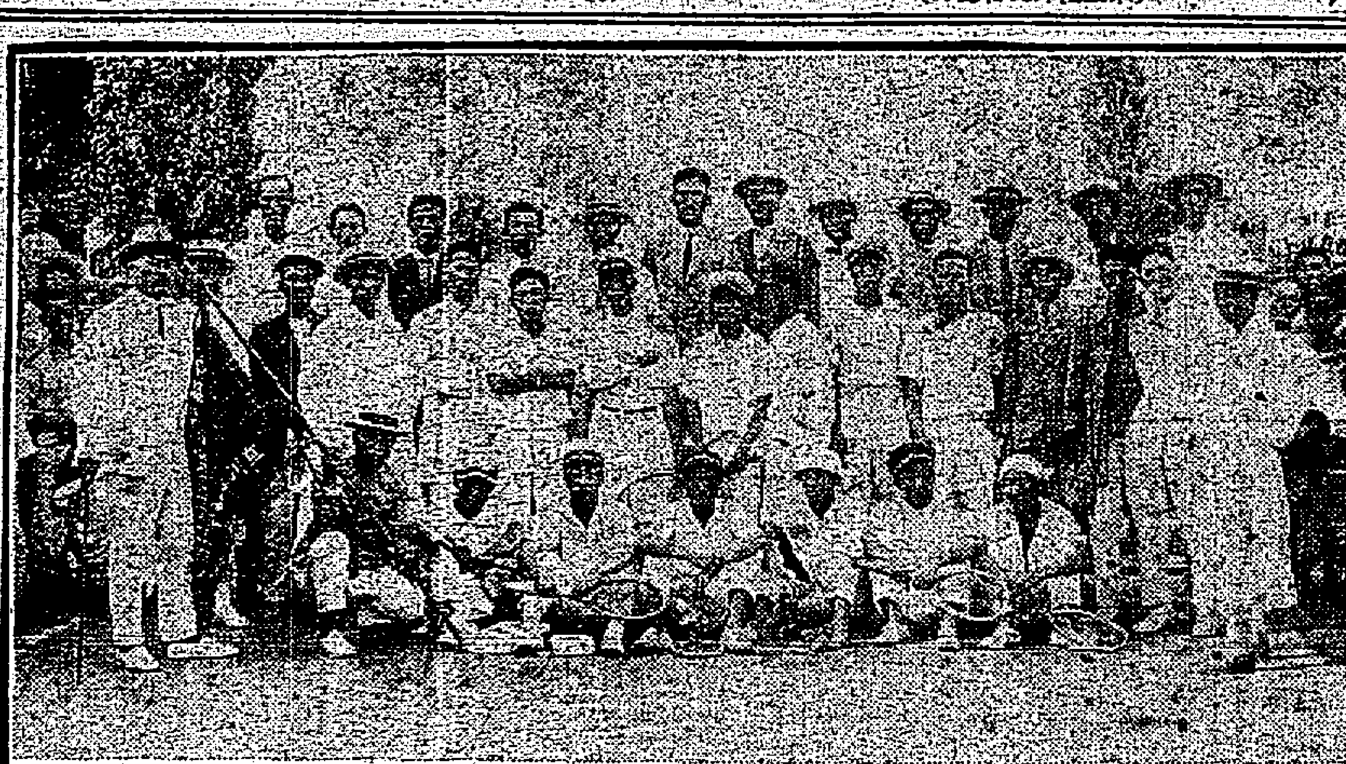
利川邑美監理教會에서는去二十六日에罹災民을救濟키爲하야左와如히義捐하엿다고(利川)
▲義捐諸氏
▲李明淑, 李海水, 鄭昌永各二圓 ▲高도라, 朴成勳, 具聖根, 鄭圭昌, 鄭聖鎬各一圓, 文吉[illegible], 陳永信, 金馬勵各五十錢(以下略)

水災救濟主日

安山邑內의茂芝里耶蘇教會堂에서는職員數名의發起로八月九日을水災救濟主日로定하야水災救濟를[illegible]

當局의偏挾으로差別한 梁山水利分裂?
朝鮮人區內는分立運動

梁山水利는昨年春에겨우完成되야一年을지내지못한今年洪水에東部區堤防이崩壞되엿는데일로因하야同組合內에는여러가지問題가惹出한다한다 元來梁山水利區域이江水를中間에두고東西兩區에分離되여잇는바東區內地主는大部分이朝鮮人이오西區內地主는大部分이日本人이라組合이創設以後로모든일에西便區만本位로삼고東便區는도라보지아니하여오든中今番洪水에際하야도救護는勿論이오東西兩堤防이危險하던것치는西便堤防만專力救護하고東便에는모이지도아니하엿다는데그것은專혀本區의崩壞가西區에助力됨으로그대로放還한것이라한다그리하야畢竟은東區堤防이崩壞되고말엇스며그崩壞된場所를보건대最初設計부터不完全하엿다는데東區에서는崔商翕, 李喆鎬, 池榮璣三人의發起로有志가會合하야東西兩便區域의各自別分割을決議하는一方으로는道廳, 總督府에陳情하며現組合當局者들을糾彈할目的으로今明間東區地主有志大會를開催한다는바當局은相當히注目하고잇스며朝鮮水利組合問題에一記錄이될것이라고(梁山)



◇宣川 第二回全朝鮮庭球大會
【主催後援側과優勝한宣普學窓軍】

◇地方論壇◇
栗山市場問題
安州支局 一記者

安州栗山市場은當地中央에在한鷹座市場의延長(栗山, 鷹座이約三町距離)인데昨年三月에許可를受하고本年閏四月부터開市되야兩個月을지내엿스나市日에場軍이充分히集合되지못함으로今後부터는鷹座市場과分設하야市日을互相遞番케하기로目下運動中이라한다

◇元來安州城內는戶數二千에人口萬餘를算하는都會로서不過五百八十坪되는鷹座市場이恒常市日을當하면市場區域以內의道路를使用케되야交通上混雜이甚할뿐더러더욱이霖雨期에至하면곳浸水가되야市場取引의大困難을感하여옴이事實이다이런不便을避키爲함은外라安州市街의一所發展을圖키爲하야數年前부터栗山, 南川兩里住民이市場增設에努力하여오든바昨年에至하야住民一般의資擔으로六千圓金을借入하야當市場用地二千坪을買收하야當面(安州面)에寄附하고面의名義(市場은面의經營으로함이니市場規則에所以)로市場許可를受하엿다

◇그러하고市場請願을提出할當時의一般住民의意見이分設을熱望하엿스나面當局에서「鷹座市場區域이本是狹窄한즉新設市場을分設로할것업시鷹座市場의延長으로하고每市日에鷹座市場으로한아금그의一定區域以外의道路使用을絶對嚴禁하도록警察署에依賴取締하면市場의多部分이新市場으로勿論集合될터이라」(當時에安州面長으로부터栗山市民代表者에게公式發表한것이有함)는見地에서結局前記와如한延長許可를受하게된것이엿스나實際開市를하고보니鷹座市場으로集合되지못하고每々前際로集合하야[illegible]市場의路上에聚集하야(其間에警察의依賴한取締를하엿스나그러케嚴切치못하엿든것이事實)됨으로新市場側住民은何等有益을보지못하게되엿다

◇그리하야前記와如한分設運動이生하게된바그동안一般住民及市場關係者인面으로부터郡當局에數次交涉中이엿스나아직確實한諒解를得치못하엿는데所謂市場의主張하는理由는栗山市場開市가아직日淺한즉아즉漸延期하는時에는一般住民의誤解를招하기쉽고新市場側의反對運動이잇슬는지도問題이라는그런點에잇다한다

義州地方에遍蔓한 二千萬石의松虫
林野와水源池에大脅威

義州郡城地方에는松虫이繁殖하야被害가不少한中義州郡管內의南部郡新義州府民의生命이되는水源地와道路林이잇는古館面과威遠, 批峴, 月華, 面等地에잇는林野一帶에松蟲이發生하야漸漸野에發延하는時에는一般住民의生活問題도되겟고新義州府民의生命인水源池가損害될念慮가잇서合으로義州郡當局에서는此의驅除와豫防策을立하야第一着으로지난十七日부터發延되는松虫을捕殺키爲하야庶務主任以下郡職員十餘名이同地에出張하야警察官及住民과協力하야지난十七日外地에捕殺한其數爻가實로百石에가까운一千貫의幼虫, 虫卵을燒却하엿다하나아직驅除에着手하지아니한中間은九月부터來年五月에亘하야附近一帶의林野는防除驅除에着手할定이라하며仔細히調査한것은알수업스나至今에지發生한松虫이約一千九百萬石에達할模樣이라하며漸々蔓延하는中임으로적지안흔問題이라고(義州)

水害救濟音樂會

金堤郡의水害救濟로公州七個團體聯合發起이번水災損害金額은實로五十七萬餘圓에達하야罹災民의困窮함이[illegible]

公州聯合救濟

旣報한公州水害救濟로公州七個團體聯合發起委員은當地青年修養會館內에서지난달卄七日午後八時부터發起[illegible]

竹山同情遝至

李浚昇一圓, 安鍾珏一圓, 任昌淳五十錢, 鄭萬煥三十錢, 朴鎔九三十錢, 鄭榮根一圓, 殷柱滋五十錢, 李在夏一圓, 尹泰五十錢, 頭口條三郞二圓, 郭東赫五十錢, 孫洙根一圓, 尹炳奐一圓(竹山)

大邱水害同情

大邱水害救濟會에서는救濟商組合員으로부터十三回五十七錢을組合長으로부터募集하야本社大邱支局에보내며罹災民救濟에보내게한同情金品은如左(大邱)
金弘祖五圓, 梁宏淳一圓, 金乃明二圓, 池鍾三圓, 金聚洙二圓, 金觀濟二圓, 陸圭選一圓, 杜炳股二圓, 鄭圭煥二圓, 徐淳九一十錢(李致和一圓, 金元範五五

演士만八十五名
◇全羅少年少女雄辯大會

木浦青年會, 朝鮮, 東亞兩支局合同主催로全羅少年少女雄辯大會는昨日八十五名의演士가參加하야盛況을呈하엿는데의申請[illegible]去月二十五日數十名의少年演士가[illegible]

◇演題와演士
一等 李月君(七)
二等 朴慈信嬢(四)

陸上競技
親睦會創立紀念

水原學生親睦會에서는水原青年會와朝鮮東亞兩支局後援下에本月十日陸上競技大會를開催하기로하야水原青年會運動場에서創立紀念으로陸上競技大會를開催한다는바執行委員은如左하다고(水原)
金升煥, 洪淳璟, 李元昆, 車翰潤, 金德裕, 金東敏, 崔南璟, 金平淑, 李啓成, 李興元, 洪仁順, 金勝成, 洪思元, 楊潤錫, 成興男, 金洪培

西鮮庭球
役員其他大會逐定

黃海道黃州邑留學生親睦會主催로本八月十六, 七日兩日間第二回西鮮庭球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지난七月三十日에當地發性學校講堂에서臨時委員會를開催하고大會綱領과役員을如左히選定하엿다고(黃州)

◇綱領
一, 本會는庭球에技能을獎勵함으로써目的함
一, 本大會는西鮮青年團庭球界에優勝權을決定함

◇大會委員 會長李東熙, 本部委員林應八
審判部長 趙仁淳, 金顯洙, 文應奎, 劉殷相, 李昌洙, 金錫瑛, 趙明烈, 記錄委員林應八, 李允浩, 李昌洙, 林應鉛
接待委員 趙元淳, 文應斗, 鄭利奐, 趙利淳, 金永坤, 趙濟淳, 金應植

運動競技

會寧蹴球
青年優勝은會寧

咸北會寧에서는全會寧蹴球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豫定과如히二十六日午前七時半에選手一同과樂隊를先頭로會寧市內를一週한後即時競技를始作하엿다는데小學部는第二回勝戰後에中止하고青年團은全會寧軍에게로最後勝利가돌아갓다고(會寧)

地境脚戲運動

北鮮에脚戲運動으로有名한咸鏡線與上驛前地境市에서는當地臨時脚戲會主催로陰六月二十五, 六兩日間南川江邊에서脚戲運動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賞品은如左하다고(咸興)

一等 大牛一首 優勝旗一本
二等 中牛一首 優勝旗一本
三等 白木一疋(兒童에限)
比較賞 廣木一疋式
十五人連勝者 白木二疋式
其他賞品多數

南鮮蹴球
◇大會規程大要

旣報한金堤青年會主催와當地朝鮮東亞兩新聞支局後援으로來十五日부터擧行케되는第四回南鮮蹴球大會의制定한規程의大要는如左하다고(金堤)
申込期限 二月十二日外지
申込場所 金堤青年會館
抽籤 八月十四日下午九時
競技種類 純아식
賞品 保管優勝旗外메달

一, 本大會優勝團에對하야는本會特定에優勝旗를授與하며旅費로二十圓을給與할事
一, 優勝旗는優勝旗를獲得한團에서但三回連勝팀에게는永久授與함
一, 本大會는青年團을主로하고其他團體에서도參加를許諾함
一, 本大會에參加團은三組를一團으로함
一, 選手는競技開始前本會委員引率下에入場式을行함

會寧蹴球
各洞參加十三團體

本報會寧支局主催와青年會, 會寧支社, 朝鮮日報後援下에去二十六日咸北會寧에서는第一回全會寧蹴球大會를開催하엿다는데參加團體는如左
左少年團, 會寧普校(第一組), 會寧普校(第二組), 豆滿少年團, 仁溪普校, 仁溪少年團, 塔洞少年團, 青年團 獅子團(第一組), 獅子團(第二組), 會寧青年團, 京城學生親睦會, 會寧學生親睦會, 甲島學生親睦會, 仁溪青年團, 豆林青年團

宣川庭球
◇第二日續報

宣川에서開催한第一回全朝鮮庭球大會(第二日)는豫定과如히第一日에남진第三十日午前부터宣川公普學窓團에最後榮譽의優勝旗는

◎中光(東) ○李富朝
◎金元吉 [illegible]
×杉[illegible] ×下[illegible]
[illegible]

西鮮庭球
◇小學團宣川優勝

七月三十日午前十時에安岳邑南山里에서第三回西鮮庭球小學團의決勝戰을開催하엿는데山岳邑各處의應援團의熱誠과觀衆의[illegible]

東萊水災救濟

東萊郡에서는過般水災에被害된東萊面과沙上兩面罹災民의救濟策을講究하기爲하야東萊面長秋成煥氏는去月卄一日上午十一時에同郡儒林과各面總代表諸氏를招請하야協議한結果即席에서義捐金募集委員三十一人을選定하고其中十人을常務委員으로定하야怜日上午十時에臨時事務所인東萊青年會館內에集合하야會務를促進中이라고(東萊)

旺新青年에同情

시외왕십리 왕신청년회에서는이번 수재민구조에 분주히활동하야 [illegible] 머리와 이웃을 생각하시는 [illegible] 아래와 가치 동정금품을보내엿다더라(동부)

▲物品으로들어온것
鍾路四丁目, 仁義洞聯合一同白米三叺, 鍾路六丁目一同, 白米二叺, 崔錫裕白米一叺, 尹相明白米一叺, 金光準白米一叺, 高陽郡廳切米一叺, 粟米二俵

[illegible]李吉先, 李東赫各三圓, 吳安泰各五圓, 金潤[illegible], 洪宇植, 李泰根, 申吉山, 金石順, 李鍾元根, 朴相稷, 金三錫, 文福世, 各二圓, 李奉成, 李秉九, 崔興順, 朴聖五, 梁在英, 吳福基, 李淳宗, 趙聖寬, 趙元根, 洪性天, 趙順勳, 李範昭, 李範萬, 張永元, 尹相寧, 青龍寺內洪相根, 李鳳稷, 金英璡, 作元丁郞, 北原, 趙鍾煥, 李泰林各一圓, 洪性柏, 張斗英, 崔順奎, 崔順天各五十錢

釜山女青慰問

洛東江沿岸은稀有의洪水로因하야船舶及船艙越便大諸面一帶는거의浸沒되고罹災民들은衣食이困難하야道路에서彷徨한다함은當時에詳細히報道한바이니와釜山中央女子青年會에서는即時活動을開始하야四方으로同情金을募集하며一方으로는衣服을一百二十餘件을製作하야慰問隊를作하야去月二十五日午後三時에當地資學龍尹仙伊氏等以下幹部十人이船浦青年會를訪問하고幹部張晃遵氏의狀況說明을聽聞하고

◇地方短評◇

▲宣川 郡守의非行을糾彈하려고開한郡民大會가宣川에서開催된다함에는宣川郡守의進步를이를[illegible]기를바라며에이는郡守의[illegible]이업기가생겻다고
▲平壤大朝主催訪歐飛行歡迎會式場에는官民의區別을[illegible]하고『官民一致』로歡迎하엿다고
▲公州 大和町世某는救濟金募集員에게朝鮮말을하지말고日本말로하야달나고[illegible]가말터이지

夜明券番義捐

昌原[illegible] 夜明券番[illegible]에[illegible]하야左記와如히[illegible]하엿다고(馬山)

金英淑, 金蘭珠, 尹一枝, 李蓮玉, 尹[illegible]各五圓, 金珊瑚珠二圓, 徐桂月二圓, 徐錦蓮, 徐桂心, 張彩仙, 李竹香, 鄭錦玉, 李仙, 李雲仙, 金江南月, 張麗蓮各一圓, 車玉紅, 崔桂花, 安蓮心, 玉雲屏, 金綠花, 鄭仙玉, 崔如月各五十錢, 中野[illegible]二圓

▲物品으로드러온것
李蘭玉內衣一件, 崔順[illegible]上衣一件[illegible]

筏橋水害救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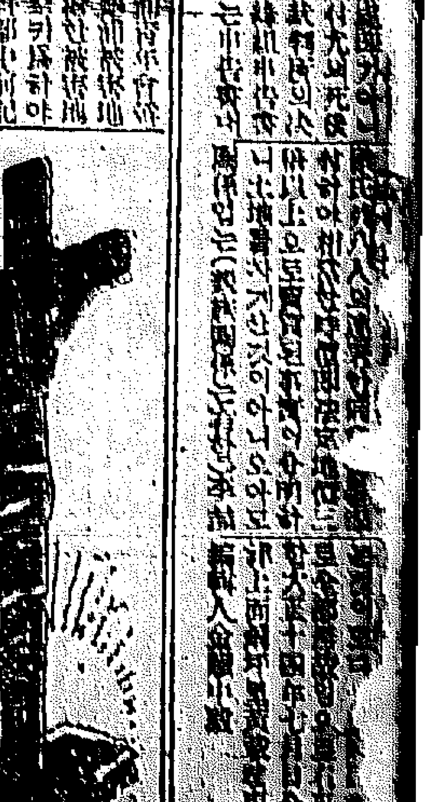
全南筏橋[illegible]

第二回關西庭球大會

◇時日 八月七, 八日兩日間(雨天順延)
◇場所 鎭南浦青年俱樂部코—트
◇參加期日 八月六日外지
◇參加金 每團(二名三組)
◇申請場所 東亞日報鎭南浦分局
◇使用球 角一軟球
◇抽籤日時 八月七日午前九時
◇賞品 優勝旗外副賞
◇主催 鎭南浦青年俱樂部
◇後援 東亞日報鎭南浦分局

第一回陸上競技大會

◇時日 八月十日
◇場所 水原青年會코—트
◇主催 水原學生親睦會
◇後援 朝鮮, 東亞兩支局



再生 (一四二) 長白山人作

하편(七九)

아모러나 그들에게는 다부산뭄명이 잇섯다 통분이라는 것보다도 [illegible]

「지금말씀한 것이 다 무슨 [illegible]」

[illegible]

「자식이야가거나말거나 버가 커돈이커범이지」 이것은명천주의한탄이다「자식은무엇하오? 어려서는 골애엿오지마는 자라나서커케진다…」이것이 사부인의 한탄이다 — 아 자식이 어두운 [illegible] 따로되어 [illegible]

質疑應答

◇質疑는法律問題와
◇質疑는簡單하게
◇應答은本紙로[illegible]

[問] [illegible]
[答] 乙은[illegible]
[問] [illegible]
[答] [illegible]
(民事訴訟法第四十條參照)

부인

학교이야기

미국형편 (二) 듯고보고

◇학교문뎨로 드러가보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매개개가지 학교가잇습니다 관립학교 교회학교 또다른사립학교 중학교외지는 거진다 관립입니다 지금 교육가들중에 강제교육을 주창하는이가만코 주창하지하게하자는 운동이 잇습니다 현이삼십년이내에 그와갓치되리라는 희망을 가진사람도 대려보앗습니다 만주정치가 그본의를 넓지아니하라면 못백성이 적어도 중학정도의 교육이 잇서야겟다는 각오에서 나온운동입니다 심산궁곡에서지라도 매십리 혹이십여리에 학교가잇고 그압헤는 좁던곳에서 단니는남녀 학생을태워주는자동차가노혀잇는것을볼때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가업고선생이업서소학교에도못단니는아희들을생각지아니할수업엇습니다 중학교까지 강제교육령이나리면미국에남녀아동은 다적어도 중학졸업생지는될것입니다

◇대학교 혹전문학교에서는 의지가강고하고재조가상당한 청년이면 부모가 학교를당해주지못해도스사로도아필업양명할지회가 잇습니다 학교나 혹다른단데에서고학생에게주는매슴혹상금이잇습니다 그리나다수의고학생은공부하는며가에 로동을합니다 녀자중에도그러한학생이만슴니다 미주예잇는 우리나라학생중에 십분의구는남녀간 로동하며공부합니다 외국의로동부하면서 그와갓치지하기는공부에방해가되지안슴니다 그러나 그도못하는것보담은낫다는것이 위로됨니다 중국과일본서오는 학생은 거의다 정부에서 학비를주거나 엇던교회단체에서주거나 그럿치아니하면 자기부모친척이 당하여줌니다

◇한가지 유감이라고 생각한것은 미국에서학생에 다수는허영이만코 고상한리상이 가업는것입니다 그들의 리상이 만히는 물질적세계를 초월하지못하고 그저돈벌어 가지고 조혼집짓고 호화롭게 살어보겟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숭치안흔리상이나 그것만으로는 너무나인생관이 천박하지안슴닛가? 그러나조수이나마 생각이 크고 리상이 원대한학생도 더러잇는것은사실입니다

실업계형편

◇미주에실업계는(잡부자유경쟁주의를바리고협조주의를 실행하자는 말이잇습니다 그러나그는아직것 말뿐에 지나지안습니다 돈잇고 세잇는사람이 눌압서가기때문에 그것들다업는사람에게는유익시잇슬배로동계급에서 단체를조직하고 공권을수합하야 자배나가는토리 경상 학교도 사관등을구경해보앗습니다 그들의단결력은 참탄복할만합니다

◇한가지를볼것은 호귀심욕가자고보것은맛돈이나빗고가욕관디방매하는 방침입니다 퀸쉬스트는의치산사에 한사람은얼음며려백평식가지고그우에다가집을며려백호지은후에 빈민에게다가파는것을보앗습니다그파는방침은사는사람의 신용과수입에하루를알아본후에 형편대로집갑에몃분만맛돈으로밧고 그남아지는 매삭십원 혹이십원부터가계한니다그래서매삭수입이적고빈한한사람이라도상살을새로단니지만코자가집을소유하게합니다파는사람사는사람다같이가는것이잇지안습니가? 우리나라도회에서돈잇는사람들이 해볼만한사업이라고생각햇습니다

여성의종々 (二)

◇녀자와단식

(에말을좃나니일) 며아숨부러킈면 휘一하며한숨만 쉬는녀자가 만호나 이것도한일이외다 이런케빗낫탄식만해서는 들어오든복떵이도 다라날모양이나 셰상아란 그럿케탄식할것시 아니외다 참말복떵이 남의집에는 굴러오되자긔집에는 아모것도 업다는수업는 생각에서 탄식이란 생겨나는것이외다 남들 부러워할필요도엄고 자긔의잇는대로 원만하면 이세상에서 즐거운일외다 쓸데업는일에 걱정하는것은 어리석은사람의 츳이외다 「아이고 엇케노!」하며 한숨쉬는곳에는 화평의빗이 갓득하지아니하야 그러한 집안에는 밝은빗이업고 어두운빗이 차하게되니 무슨일이든지 잘될리가잇겟슴닛가

(엇던친고의부인에조곰) 만하면한숨시니 이부인의이야기를 종해보겟습니다 그도한숨 쉬여만한번에한숨을 쉬지만 무슨잘못이라하겟슴닛가 만은 큰일적은일할것업시 한숨만쉬며 살녀사리이야기도 한숨 방는지음써에도 한숨이나넘편된 사람으로야 얼마나 답々하겟슴닛가 무슨일이든지 한숨이란 초져못한것스로 이부인은남편이무슨 새로운일을하라고 생각할때에도 휘一라하고한숨을쉬여 남편에 게구중을밧는것도 보앗슴니다 손님이와서 유쾌하게 이야기할때에어부인이 한숨을지우면 손님은 「이집에무슨일이 생긴것」하고 돌아가서 이런일을두세번 보고는 『그집은 엇재 그런지 쉴어보이든걸』하게되면 오든사람도 안오게되니 사랑의집에 세상살림자가 무엇이겟슴닛가 그래서하미가 되는 친고되는사람이 조곰만한로는 한탄식하는것을 자미엄스람에도 그만둡시요 탄식만하게되면 나 자연가운이업서집니다

「갓듬감시면 (야하게되나아만)」 갈필요가무게나아간다든지 초처안아요」하는친고를 이야기하고나서 그부인의 남편과 이야기하는것을 무심히 자서 듯는부인은 다시 한숨을 쉬이나서 남편은청하나기러박갓한쉬이나 이런망할일이 어데또잇단하고 무엇하러도 잇엇다나그런즉이부인은『아々엇케노!』하며 또한숨을쉬이나서 왓든친고는 돌아갈무렵도 잇섯습니다 그래아마 아부인은 아주 쇠식도 그버릇이 낫지못하고 그집안이 화평할나이나 그집안이 화평하겟나 아니식이란 들어오는복을 마치로뜻다려 내여보내는것이니 할부로 한숨을쉬일것시아니외다

溫突閑話

▲쉬양서는 난날을따귀 그사람을 집작하는습관이잇서 월요일에난아희는얼굴이엽브고 화요일에난아희는 예정이만코 ▲수요일에 난사람은불행할것이요 목요일에난아희는멀니갈관상이요 금요일에 난아희는 친절하고 은혜가만하야금요일을 중히녀긴다▲그리고 토요일에 난아희는 한평생죽도록 일할관상이라니 일본녀자가 병자변생을길러하는것과마찬가지로 실상 허황한말도 십다▲맨나종일요일에 난아희는 엇던고하니엄굴이 엡브고 약게생겨나날이갈심하게 되얀아나고 귀운이촉타니 안은그날은 쉬는날이요은혜깁흔날이니 그럴듯한 말갓기도하다

沙上漫筆 (五)

逍遙山人

◇忠君도좃코 愛國도좃코 戀愛도좃코 禁酒도좃타 봄이되면꽃구경도가고 가을밤에는 劇場으로 옷고볼고하는것도구경하자 그러나한가지 니커서는안될것이니 熱中하야 利害得失의局面에 우면돌지말것이다그局面에만 들어서면 큰일이나니 古人은憤之在色이라하엿거니와 나는恨之利害得失이라하겟다

『페아리·퀸』이란長詩로 英國古代文學社會에 名聲이놉흔 詩人『로마스·스펜서』의이야기를하나해보자 氏의이長詩는어지간니有名한것으로 英國가못나자 氏는當時貴族『노삼본』候에게로가지고가서 關覽을請하엿더니 니들어줌소서고 關覽한즉단마되에承諾을함으로 이詩人은멧句를읇펏다 候는대단히感動되야下人을불으더니 이詩人에게 賞으로 二百圓만돌이라고命하엿다 詩人은興이나서 몃十句를또읊픈즉 候는益益感服하야 再次下人을불너 二百圓을 더들이라고 命하는것을듯고는詩人도益々興이나서 몃百句를읇펏다 읇프면읇흘사록 候의感興은더깁허 三次나下人을불너 또二百圓을더 주라고命하엿다 득一案을생각하고 下人을불너다 이때에候는敎皷하면서 문詩은 候의精神을째앗슬듯하엿 感興되며로感興된詩人의詩 이번에는 二百圓주라는命令은 하지아니하고 千萬意外에詩人『스펜쓰』를가르치면서이詩人을即時로내여쫏추라는命令하니와 엇지된영문들몰으는下人은 멈작놀내며『顧歎하는詩句에營成못하실時節이나잇슴니가?』고몰은즉 候는머리를흔들며『아니 그런것이 아니다 이詩篇을 다 들으면 내 財産을 다 주어도 모자라겟다』하엿다 한다

科學과發明

麥稿로만든배

◇배도여러가지가잇는中에나무로 만든배가아마始祖일것이니世界人類中에 하다못해 큰材木을파서『카누』한개만들줄모르는 族屬이 업슬것이다 鐵鑛으로만든배는 蒸汽機關發明後로 世界를征服하엿다하겟고 近日에는 鐵筋콩크리트배도 잇다한면인드고배는 련하자의便이된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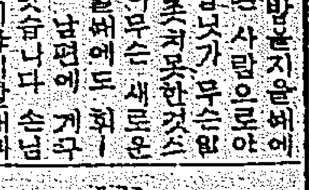
◇그런데南美폐루土人種은麥稿로배를지어라고 단닌다니참으로千古未聞이라하겟습니다 이배는麥稿를 멍석가치친뒤에 다시묶거서만드린는데 한사람이能히손으로옮길만큼 가볍고 또물에도잘뜨는 고로제밀지우것이라도 一頭의原을능히시를수잇다합니다 그러나 너머가벼운고로 물노는배로너머흔들님으로 아모리물에서자라난 水夫라도 이배를타고는멀미안나는사람이업답니다

◇그러나아모리험한風浪에도 가벼운까닭에 破船되거나물속으로 잠길렴려가업스며뒤집혀지도쉬이아니한다 함니다 이浸沒안되는點이 더욱利한것은 『티티카카』湖上의물의 엇지찬지아모리遊泳의 名人이라도그물에한번빠지면數分內에 溺死하지아니할수업다 함이외다 그럼으로 이湖水우에는다른배는업고 이麥稿船이流行이랍니다 (挿畫參照)

科學과想像力

◇空想은詩人이나小說家의할것이오 科學家나實務家에는必要가업는것으로 생각함은큰잘못이외다 科學家일수록 偉大한想像力의 所有者이되는것은 古來의 科學家들이如出一口로 唱하는바외다 科學家의 心中에나타낫다스러지는假想 設計 幻想이一日에도 數가업습니다 鉛은가지고金을만든다든 古代化學家를연지하는물에 雷電을잡어나라던『프랑클린』이던지 사람의목소리를 인도고板에잡아너으련는『에듸손』의 空想이 어지간합니가

◇獨乙大詩聖兼植物學者『께테』는英國詩人『바이론』의 를밝기위하야 英語를 메우노력하엿고進化論의元祖인『다윈』의少年時代에 詩도지엇고沙翁의作을愛讀하엿스며 晩年에도『스코트』의小說을낡엇습니더愛讀하엿다합니다 거긔 關連하야나舊日의偉人의 女趣味가低하야感傷의作品을愛讀한것은硏究할만한 거린가도합니다



◇화동는잇미자◇

력래의기고 (二)

閑中忙

물고기가운데 준치라는놈은 본시쌔가 업섯습니다그리하여 용왕에게가서 이러케말하엿습니다

『수궁에사는 뭇고기는다쌔가잇사온데 신만홀노 쌔가업서여러무리에업수임을밧사오니대왕께서 가엽시녀이사사 쎄몸쎄를부치주옵소서』

하엿습니다 그리한즉용왕도준치의청함을가엽시 녀이어서여러백성을모아노코 이러케말하엿습니다

『너의들은하나식 너이는각각쎄를하나식베여서 준치를주어라』

하엿습니다 그리한즉여러족속들은각각쎄하나식을 째아서는 준치에머리에서 부러쏫기시작하엿습니다 그러나 본시몸고기족속이 만핫습으로다쏫지를 못하게되엿습니다 그리하여남은쎄를 그꼬리에다붓치고 그래서준치는 그꼬리근처에다쎄만코 더구나 그럿케만히 준치에게는 쎄가만히 잇게되엿다합니다 참말 그러한지요? 되엿다합니다

光明은東方에서 (二)

一『들이는노래』의思想一

金岸曙

『기탄자리』는『나이베드야』와『케야』라는詩集과 다른作中에서 약이쏩한百三篇의詩歌로 最近二十年間의 作品입니다 原語를理解하지못하고 詩歌를 이야기함은無味한일입지몰의겟읽나만은 詩人自身의손으로 英譯한것이니 얼마큼原詩와는 숩니다만은 內容의詩想에는 그것만으로도 이詩歌의內容의 엄마는짐작할수가잇슬줄로압니다 무엇보다도 본위한마되하여둡니다 만은宗敎와文藝에 날알은光彩를天下印度가 나하나로現代詩人이 敎虔한宗敎의懷疑에서 宗敎의信仰詩歌를흡울하게 엇더한表現을가지고 엇더한情操를나타내엿스며 또는 그精神이우리와 엇더한共鳴을주는지 다시말하면 그詩集의思想을엇보자하는것입니다 더욱『기탄자리』를참아서이야기하라는것은 그것이詩人의代表作인同時에 가장참宗敎에對한信仰을表白한것이기때문입니다

少年東亞日報

靑邱少年會創立

오는삼일 오후두시에 시내 공평동에 잇는 (市內 公平洞)에서 청구소년회(靑邱少年會)를 창립하고 취지 설명과 회칙통과가 잇슬터이라 합니다

金南少年聯盟發起 (全南)

전남 (全南) 각곳에 잇는 소년단체와 소년회를 련맹하야 소년운동을 하기위하야 금번에 발기회를 열엇다 합니다

黃州少年會講演

황해도 황주(黃州)소년회에서 지난칠월 이십일 황주 (黃州)소년회관에서 강연회를 열엇는데 만흔 청중이 모혓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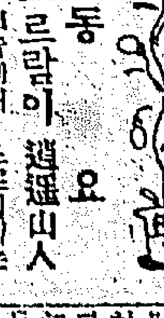
동요

쓰르람이

逍遙山人

◇쓰르람이 쓰르람 혼자서쓰르람쓰르람 뒤人山에서 쓰르람이는 혼자서쓰르람쓰르람 합니다

쓰르람쓰르람 쓰르람이는 누나를 생각하고 쓰르람쓰르람 쓰르람이는 울어요 그리워서



時調

넘어도쓸쓸한처녀여

金剛耕夫

그는 힘업시 화장하엿다 그살빗은 넘우도 희여젓다
못생긴얼굴을 메우고자
그는 힘업시 그림을그렷다 그그림은 넘우도 아름다웟다
못생긴 얼굴을 메우고자
그는힘업시 몸을지엿다 그몸은 넘우도 고왓다
못생긴 얼굴을 메우고자
그는힘업시 바이오린을탓다 그바이오린은 넘우도 사람을 울렷다
아! 못생긴얼굴을 메우고자
그는 모든것에 잘나고말앗다
그러나 그얼굴은 永遠히 메우지못하고
그는 지금엇외로운 쳐엄에 살아간다
아아 넘우도 못난처녀여
넘우도 갓난처녀여
그러고 아아 넘우도쓸쓸한처녀여

鐵窓回顧 (六)

李鳳洙

다음에 私食이나 衣服이나 手巾비누 幽閉등에 必要한것은 그것이監獄에게 만할이라 두말할것도업거니와 配本에하한것이나 忘失하야주지아니하엿거나 衣로보던탄 身體가쉬어서못 추어서보던탄 더구나惟一의벗되는 書冊을 인드려주엇스면 人의慰勞이나 自殺을 구경할것이아니라 自己가經驗하엿슬는지도 모릅슬것입니다 이모든것은 치주신여러분과 그신문에 對하야는참

新刊紹介

新刊紹介는 東亞日報社 學藝部로 보내주시오

▲朝鮮公論(七月號) 日文인同誌 七月號는 朝鮮電氣事業號 (定價七十錢 發行所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朝鮮公論社振替京城一五七七番)

▲俳句文藝(七月號) 日文의俳句雜誌 (定價二十五錢發行所日本東京市外大塚町居木橋二四一〇號社振替口座東京六九八二〇番)

▲朝鮮敎育(七月號) 日文의敎育雜誌 (定價十五錢發行所京城府貞金町三의三四九朝鮮敎育發行所振替京城一二一四七)

▲바이론詩集 (張相侑譯) 熱情의詩人으로 自由와光榮을爲하야 싸운 그의詩集 (定價一圓二十錢發行所京城府 樂園洞六七文友堂振替京城一二七二七番)

◇祝東亞日報法聖分局設置◇

全南靈光郡法聖面 面役所職員一同

全南靈光郡法聖面上下里 敎育協會員 金彩炳

全南靈光郡法聖面城山里 金京禹

全南靈光郡法聖面新石里 曺遠鍾

全南靈光郡法聖面新石里 劉載泳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李庸鎬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洪昌義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金千洙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區長 金昌浩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前參事 金陽洙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林承天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林武雜

全南靈光郡法聖面法聖里 面協議員 南宮棋

全南靈光郡法聖面法聖里 朝鮮料理 秋月館 主 韓已亭 金錦珠 尹桂花 李亭蘭 金香花 許桃紅 李錦仙 朴月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海陸物產貿易商 姜吉周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安鎬洙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雜貨商 朴性采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海陸物產貿易商 金瑞水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旅館主 姜周範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面協議員 崔濟燮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雜貨商 朴丙淳

全南靈光郡法聖面鎭內里 雜貨商 李采機

全南靈光郡法聖面法聖里 米穀商 林東眞

全南靈光郡法聖面法聖里 南一理髮館 申判翼

全南靈光郡法聖面三堂里 精米業 金永大

◇祝東亞日報雲山分局發展◇

雲山郡雲山面 旅館業 永井庄太郎

新義州地方法院雲山出張所 日高由俊

雲山郡雲山面 金炳灝

雲山金融組合長 金在性

雲山郡雲山面 金東一

雲山郡雲山面 金玉性

雲山郡雲山面 區長 金禹性

雲山郡雲山面 鄭聖榮

雲山郡邑內 李載倫

雲山郡雲山面 李重進

雲山郡城面 司法代書人 白樂裕

雲山郡城面 酒類製造業 洪炳三

雲山郡城面 李昌住

昌城郡青山面 雲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雲山郡邑內 李秉珏

雲山郡東新面 區長 金永彬

雲山郡城面 區長 [illegible]

雲山郡邑內 雲山美監理敎會

昌城郡青山面 [illegible]

昌城郡青山面 [illegible]

雲山郡城面 [illegible]

雲山郡東新面 [illegible]

雲山郡東新面 [illegible]

雲山郡城面 [illegible]

雲山郡雲山面 [illegible]

雲山郡雲山面 李 [illegible]

平北雲山郡雲山面 區長 鄭東鶴

平北雲山郡雲山面 雲山郡廳 職員一同

平北雲山郡雲山面 雲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平北雲山郡邑內 李泰承商店

平北雲山郡邑內 雜貨商 元吉重城商店

平北雲山郡邑內 李永根

平北雲山郡邑內 天道敎宗理院

雲山郡邑內 酒類製造業 金榮洙

雲山郡雲山面 李昌駿

雲山郡雲山面 康弘祥

雲山郡雲山面 雲山面職員一同

雲山郡城面 區長 沈希元

雲山郡城面 城面職員一同

雲山郡東新面 東新面職員一同

雲山郡雲山面 雲山金融組合職員一同

雲山郡雲山面 李仁燮

雲山郡雲山面 司法代書人 白樂汝

汽車時間

[illegible]